부처님 공덕에 음악·춤·공양 펼치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⑭ 부산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비천벽화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비천벽화. 향좌측부터 기악비천(2폭)–공양비천(1폭)–가무비천(2폭).

한 건물에 세 불전이 통합된 구조
7칸 빗반자 천정에 42폭 비천벽화
주악·가무·공양 벽화에 예악 사상
음악, 무용, 공양물 세세생생 헌공

팔상전(3칸)			독성전(1칸)	나한전(3칸)		
가무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가무비천 (3명)	공양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가무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감실천정		감실천정		감실천정	
가무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가무비천 (3명)	공양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가무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팔상전(3칸), 독성전(1칸), 나한전(3칸)

부산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捌相獨聖羅漢殿) 건물은 독특하다. 건물명 속에 그 특징이 들어있다. 하나의 건물에 팔상전, 독성전, 나한전의 세 불전이 통합돼 있다. 세 건물은 원래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독립적이었다. 일제가 1904년에 발행한 〈한국건축조사보고〉를 보면 중건 이전의 모습이 보인다. 3칸 건물인 팔상전과 나한전은 서로 독립된 건물이고, 두 건물 사이에 '천태문(天台門)'이라는 한 칸의 출입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태문'은 독성인 나반존자가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남인도 천태산의 상징적 의미다.

이후 천태문을 독성전 전각으로 개축한 후 세 건물을 한 건물처럼 연결해 오늘날의 모습처럼 7칸의 가로로 긴 형태로 바꿨다. 그때를 1905년으로 추정한다. 그런 사실은 1907년에 제작한 '팔상나한독성각중건 급 제성상신화성기' 현판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판에는 팔상전, 나한전, 독성각을 중건하고 각 성상과 불화를 새롭게 그려 봉안한 불사를 1905년 학암 스님이 중심이 돼서 시작해 1906년에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팔상독성나한전은 정면 7칸, 측면 1칸의 가로로 장대한 모습을 띤다. 향좌측부터 팔상전(3칸)-독성전(1칸)-나한전(3칸)의 대칭 구조다. 세 건물을 통합한 하나의 불전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서로 독립 공간으로 명확히 분리돼 있다.

팔상독성나한전 건물은 측면이 ㅅ모양의 지붕을 한 맞배 건축이다. 맞배 건축의 가구 구조에 따라 내부의 앞뒤 천정을 서까래와 같은 물매를 가진 빗반자 천정으로 가설했다. 건물 한 칸의 천정마다 세 폭의 빗반자로 나눴다. 그래서 정면 7칸에 21폭의 빗반자 화면이 나타난다. 맞배 건축이라 전후가 같으므로 빗반자 천정에 3×7×2=42 해서 모두 42폭의 빗반자 화면을 자연스럽게 조성했다. 이런 사례는 대단히 희귀한 장면이다. 장인 예술가들은 빗반자 천정에 마련된 이 42폭의 화면을 환희심 넘치는 장엄 예술 갤러리로 재해석했다.

한국 산사 법당에서 빗반자 천정에 그린 가장 대표적인 장엄 소재는 비천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과 춤을 펼치는 가무비천, 과일·꽃·차·향 등 다양한 공양물을 올리는 공양비천을 그려 부처님 설법 공간에 충만한 환희심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경 김용사 대웅전,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빗반자 천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비천이 등장하는 비천벽화의 장대한 갤러리다. 무려 42폭의 화면에 비천세계를 펼쳤다. 비천벽화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는 비천장엄의 향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악 18, 가무 18, 공양비천 6

비천은 주악비천, 가무비천, 공양비천의 세 부류로 나눈다. 범어사에선 세 비천이 모두 나타난다. 42폭의 화면에 대칭과 균형감각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했다. 정면 7칸을 향좌측부터 가무비천-주악비천-가무비천-공양비천-주악비천-가무비천-주악비천의 순서로 그렸다. 비천의 배치 라임에 리듬감이 뱄다. 주악비천과 가무비천은 각각 3칸의 앞뒤 빗반자에 그렸지만 공양비천은 정중앙인 독성전 1칸 앞뒤 빗반자에만 귀하게 그렸다. 그 배열을 평면도 식으로 펼치면 다음과 같다. 〈표 참조〉

42폭의 벽화 중 주악비천과 가무비천은 각각 18폭씩이고 공양비천은 6폭이다. 벽화 속 비천의 모습은 한결같이 앳된 동자, 동녀다. 42명의 동자 중 15명만 여성이고 나머진 모두 남성으로 보인다. 15명의 여성은 모두 춤사위를 펼치고 있는 가무비천이다. 이들은 모두 구슬을 장식한 전립을 쓰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무비천도 원래 18명이다. 전립을 쓴 사람이 15명으로 여성이고 쓰지 않은 가무비천 3명은 하나같이 붉은 끈을 머리에 장식한 남성이다. 같은 가무비천 무리 속에서도 머리 장식으로 성별을 구별하고 있어 흥미롭다. 가무비천의 춤사위 속에 디딤과 사위의 조합이 잘 표현돼 있어 시선을 끈다.

전통춤에서 디딤은 지면 접촉과 반력을 수용하는 발동작이고, 사위는 몸의 흐름과 강약을 조절하는 팔동작이다. 춤 몸짓에서 수족은 서로 상응해야 한다. 디딤과 사위, 굴신을 통해 디디고 맺고 어르고 풀어 신명과 환희로 승화시키는 춤사위가 벽화 속에 오롯이 담겼다. 그 모든 춤사위 몸짓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에 대한 예경과 찬양, 환희지(歡喜地)가 스며 있다. 그래서 불교무용을 '작법(作法)'이라 한다. 가르침을 몸동작으로 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몸을 굽히고 펴는 굴신은 삼보에 귀의함을 뜻한다. 맺고 어르고 푸는 춤사위가 곧 법이고 예경이다.

주악비천 17가지 악기 연주

벽화에 나오는 42명 비천의 헤어스타일이나 머리 장식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형식이 보인다. 42명을 머리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립을 쓴 비천: 15명 △모란꽃 형상의 화관을 쓴 비천:12명 △붉은 끈 장식을 한 비천: 9명 △민머리: 5명 △연잎 모자를 쓴 비천:1명. 전립을 쓴 비천 15명이 모두 여성이고 가무비천이었다면 화관을 쓴 비천 12명은 모두 남성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벽화 속에 등장하는 악기는 장구, 소고, 소라, 생황, 횡적, 운라, 해금, 대금, 꽹과리, 징, 비파, 바라, 나팔, 박, 태평소 등 모두 17가지 전통악기들이 나온다. 18폭의 주악비천벽화 중에서 장구가 두 차례 나오는 까닭에 악기 종류는 17가지다. 전통악기의 진열장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의 편재이고 규모다. 범어사 비천벽화에서도 앞서 내소사 대웅보전 악기벽화 연재에서 그 생김이 특이하다고 언급한 박 악기가 나오는데, 두 곳 모두 단 두 개의 나무 편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로 묘사해서 인상적이다.

주악비천은 본질적으로 〈무량수경〉 등의 경전에서 표현하는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음악'의 상징이다. 부처님 설법회상에서, 또는 극락정토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부처님 공덕에 대한 예경의 소리이면서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음악을 '범패(梵唄)'라 한다. '범'은 우주법신의 부처님이고, '패'는 소리이자 음악이다. 즉, 부처님의 공덕을 찬하는 음악을 말한다.

범어사 42폭의 비천벽화 중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벽화는 독성전의 앞뒤 빗반자 천정에 만 그린 여섯 점의 공양비천이다. 공양비천은 어느 비천보다도 앳된 동자의 특성이 뚜렷하다. 머리 형식도 붉은 끈으로 두 곳을 묶은 쌍상투다. 옷차림도 특별히 다르다. 격식을 갖춘 두루마리 차림이고 몸가짐도 단정하며 정중하다. 조선 유교 사회에서 사회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립한 핵심 사상이 예악(禮樂)이다. 예는 질서이고 악은 조화다. 예(禮)가 지나치면 사회가 경직되기 쉽고, 악(樂)이 지나치면 무질서로 혼란스럽다. 주악과 가무비천 벽화 속에 여민락의 악이 담겨 있다면 공양비천벽화 속엔 공경의 예가 녹아 있다. 비천벽화 기저에 정중동과 예악 사상이 흐른다. 그것은 불교 진리인 중도와 통한다. 무릇 불교 조형장엄은 법의 방편반야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공양비천은 무엇을 공양 올리는가? 벽화 속 공양비천은 공양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혹은 큰 접시나 함지박에 담아 헌공한다. 공양물은 모두 과일이다. 부처님 손 모양으로 생긴 열대 과일 불수감도 있고, 석류, 천도, 가지를 비롯해서 개구리참외, 수박, 연꽃도 보인다. 희한하게도 수박은 윗부분을 잘라 총총히 박힌 씨앗을 드러나게 해서 공양 올린다. 석류와 가지와 씨앗 총총한 수박, 참외는 사실상 같은 의미다. 씨앗 가득한 것이 다득남의 상징물들이다. 천도는 장수의 의미이고, 불수감은 다복의 의미, 연꽃은 청정한 마음이다. 공양물 속에 득남과 수복의 기복 바람이 담겼다.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42폭 비천벽화 속에 춤과 음악과 공양물을 세세생생 지심귀명례로 헌공하는 벅찬 환희지가 영겁으로 담겼다.



노재학 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온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